



3면

"충선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환영"

# 전주매일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음 1월 24일) 제34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도내 청년 매년 평균 8000여명 출향

## 일자리 창출·정책 지원 청년 지역 정착 돕는다

전북자치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도모  
전북청년 합성 패키지 등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추진 중

최근 전북지역에서 해마다 평균 8,000여명의 청년 인구가 지역을 떠나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통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전북지역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 인구(20~39세)가 다른 시도로 떠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168명, 2021년 7,909명, 2022년 8,127명, 2023년 7,115명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북 청년 인구 가운데 △20~24세 3,850명(54.1%) △25~29세 2,546명(35.8%) △30~34세 658명(9.2%) △34~39세 61명(0.9%)가 출향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출향행렬과 저출생 고령화가 맞물려 인구가 급감하면서 도내 지자체는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중 익산시를 포함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진안군을 포함한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 비전 실현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관리 등 5대 분야에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진로탐색부터 자선형성까지 유기적인 고용안정 사다리 구축과 청년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전북 청년 직무인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전북자치도의 농산업 구조에 맞춤형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은 직무체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을 대학생 한정에서 일반 청년으로 확대해 900여명을 대상으로 46억원의 실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2023년에는 889명에 대해 직무인턴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월 80~110만원 범위에서 2,000여명을 대상으로 130억원의 영농정착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 735명 대상으로 청년 직접일자리,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에 1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 농촌보증금지리 조성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 신혼부부 대상에서 올해는 청년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으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 농촌보증금지리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32억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3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3년간(2022~2024)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최대 1년간), 1,700여명 지원할 계획이며, 작년까지 4,250명에게 지원했다.

교육분야에는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을 확대 시행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 산업구조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어 복지·문화 분야로는 '구직→

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패키지로 구성한 전북청년 합성 패키지 사업과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청년 합성 패키지사업은 세가지 꾸러미로 분류할 수 있다. '전북청년 청년활력수당'은 취업준비중인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신용카드로 연계한 포인트방식으로 지급하며, 2,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정착기반이 약한 취업초기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명을 선정 지원한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극'은 근로청년이 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 지원액 10만원을 적립, 2년 만기시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매칭 저축사업으로 지난해 높은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우리의 일상공간으로 찾아오는 청년예술 주문배달서비스사업 신설 등 수도권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 참여·관리 분야에 청년이 구상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우리지역의 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청년정책 포럼단을 확대 운영한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전북청년 도약프로젝트 등도 추진된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자리잡고 삶의 터전을 꾸리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기회의 땅 전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도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자치도의회 의장,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도내의 주요인사, 국군장병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세상향을 하고 있다.

## '선조들의 민족정신 계승·발전'

전북자치도,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도내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 모시고 기념식 개최  
항일운동 앞장 고 정극량 애국지사 후손에 대통령 표창  
군산·익산 등 도내 곳곳 3·1절 기념행사 잇따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1일 오전 10시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도내의 주요인사, 국군장병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3·1절 기념식으로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노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개식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생존애국지사 격려, 독립선언문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상향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 유일의 생존애국지사인 이석규

애국지사를 직접 모시고 임정한 뒤 애국지사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꽃목걸이를 전달했다. 이어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의 독립선언 낭독이 이어졌고 1929년 5월 전주공립고등학교 재학 중 동맹휴학사건에 참여해 항일운동을 한 고(故) 정극량 애국지사 후손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념사에서 국가적 위기마다 가장 먼저 태극기를 들고 힘차게 나섰던 전북의 당당한 역사에 경의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전북에서 발원하고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이 표출됐던 동학농민혁명 3.1운동으로 올곧게 계승 발전한 것처럼 더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 베드를 향한 큰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내 시군 곳곳에서도

3·1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먼저, 전주시 송천동 독립운동추념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주년 3·1절 기념 참배행사'가 진행됐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일원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및 3·5단체 재현행사가 열렸고,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또한, 호남지역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정읍시 태인면 일원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고창 동리국악당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렸다.

남원시 덕과면 3·1절 기념탑 광장에서 3·1절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으며, 완주군은 경천면에 위치한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에서 3·1절 기념식을 열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3·1절은 지난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 국민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차원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민족의 자주 독립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로,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